



해피리안 '누보백'

외출땀 기저귀 가방... 펼치면 아기 침대로 변신

2012년 3월 어느 날, 한 유아업체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던 고민석 씨는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갔다. 식사 도중 태어난 지 1년 된 둘째 아이가 잠이 들었다. 하지만 아이를 눕힐 마땅한 곳이 없었다. 밖에서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생각했다. "아기가 어디서나 편하게 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1년 뒤 그는 '해피리안'을 설립, 가방과 휴대용 아기 침대를 결합한 '누보백'을 내놨다. 누보백은 평소에는 기저귀 등을 넣는 가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방을 펼치면 작은 아기 침대로 변신한다. 반응은 뜨거웠다. 고민석 해피리안 대표는 "주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누적 판매량이 1만5000개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여행과 명절 때 유용한 누보백 누보백은 '새롭다'는 뜻의 프랑스어 'nuovo'에서 따온 이름이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지었다. 그는 "가방 내부를 두꺼운 패드로 만들어 펼치기만 하면 아기가 누울 수 있는 폭신한 침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누보백의 장점으로 편의성과 청결함을 꼽았다. 그는

"수납공간이 넉넉해 여행을 가거나 명절에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할 때 기저귀 등을 대량으로 넣을 수 있고 휴대용 침대로도 이용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휴가철과 추석, 설을 앞두고 주문이 밀려든다"고 말했다.

최근엔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문의가 평소보다 두 배 늘었다.

가방 내부 두꺼운 패드로 밖에서 아기 눕히기 쉽게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 누적판매 1만5000개 돌파
중 등 해외시장 개척 나서

고 대표는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 예방접종 등으로 아기를 데리고 반드시 외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기를 최대한 위생적인 공간에 눕히기 위해 누보백을 찾는 이가 많아졌다"고 소개했다.

세탁도 간편하다. 그는 "내부 패드와 외부 가방은 분리 가능하며 모두 세탁기에 넣어 한 번에 빨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제품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종류는 두 가지로 옆으로 펼 수 있는 크로스백과 등뒤로 매는 백팩이 있다.

◆출산 선물로 입소문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네이버 등에서 '출산 선물' 추천 순위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올 상반기(1~6월)에는 이미 작년 전체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해 매출은 3억원 수준이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누보백은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 100여곳에서 판매되고 있다. 자체 온라인몰은 물론 소셜커머스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조만간 해외시장 공략에도 나선 계획이다. 고 대표는 "국내 전시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제품을 본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는 "중국은 산악지형이 많아져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전시회에 적극 참여해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경기자 hkkim@hankyung.com



고민석 해피리안 대표가 '누보백'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김희경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성광유니텍의 스마트 방범시스템창원기드 (042)583-9121 △펠리테크의 비타플러스 (051)971-4799 △삼일렉트로닉스의 스마트키 KCLICK (032)209-8203 △해피리안의 누보백 070-8780-9998

美 본사도 반한 '미니멜츠' (구슬아이스크림 브랜드) 동학식품, 세계 최대 공장 가동

동학식품이 세계 최대 구슬아이스크림 공장을 짓고 18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충북 음성군 원남산업단지에서 지어진 동학식품의 새 공장은 대지 1만5840㎡, 건축면적 5000㎡ 규모다.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공장에서는 월 300t 규모의 구슬아이스크림 생산이 가능하다. 기존 경기 안산공장 생산능력(월 50t)의 6배 규모다.

새 공장에는 공장 장비 세척과 살균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CIP 시스템' 등 최신 설비를 설치했다.

전국 주요 편의점에 공급 홍콩·대만 등 본격 수출 미국 역수출도 논의 중

동학식품은 미국 구슬아이스크림 브랜드 '미니멜츠'를 제조하는 회사다. 지난해 165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1997년 미니멜츠 제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미국에서 제조법을 배워서 만드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해 지금은 직접 개발한 제품까지 만들고 있다. 미니멜츠는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폴란드 등 해외 7곳에 위탁 제조사를 두고 있다.

동학식품이 개발한 대표적인 제품은 '미니멜츠 슬로'다. 기존 구슬아이스크림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초저온 냉동고에서 보관해야 하는 것과 달리 이 제품은 영하 18도의 일



동학식품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계년경 동학식품 사장(왼쪽)과 톰모시 미니멜츠 CEO, 동학식품

반 냉동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 제품 운송과 판매가 이전보다 훨씬 쉬워져 구슬아이스크림이 널리 퍼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크기를 확 키운 '미니멜츠 박'도 동학식품이 자체 개발한 제품이다. 2016년에는 '구슬빙수'를 내놓을 예정이다.

동학식품은 신제품을 미국 본사에 '역수출'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2010년 확보한 아시아 지역 독점 판권을 통해 몽골 대만 홍콩 등에는 이미 수출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GS25·CU·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에 제품을 넣기로 했다. 그동안 물량이 달려 일부 편의점에만 공급했다가 신공장 준공으로 판로를 넓혔다. 동학식품은 최근 롯데제과와 공동으로 구슬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로 했다.

계년경 동학식품 사장은 "새 공장 준공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구슬아이스크림 제조시설을 갖췄다"며 "국내뿐 아니라 일본 등 해외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광기자 ahnj@hankyung.com

중진공, 소지역본부·지부서 수출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재운·사진)은 엔저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원 업무를 31개 전 지역본부·지부서 확대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그동안 중진공은 16개 지역본부에서만 수출지원 업무를 해왔다.

31개 지역본부·지부서는 관할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파악해 중진공이 운영하는 수출금융, 교육,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과 연계 지원한다. 지역 대표상품도 발굴해 해외 판매 실적 및 현지 소비자 평가 등 시장성 정보를 종합한 뒤 '수출 스타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내수 기업 중에서 수출 의지가 강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글로벌뷰처스클럽(16개 지역, 280개사)'도 결성할 예정이다.

글로벌뷰처스클럽 회원사는 수출 실무, 수출 컨설팅, 글로벌 CEO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수출 성과가 나타난 기업을 수출협의회 등에 가입시켜 '내수기업→수출기업→수출 감소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현동기자 gray@hankyung.com

'무박2일' 행군... 에스원 신입사원의 최종 관문

뉴스카페

18일 오전 6시 서울 중구 에스원 사옥. '무박2일' 행군을 마친 신입사원 68명이 막 도착했다. 고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첨단 보안직' 신입사원들로서 여제 오후 경기 남양주시 팔당역을 출발해 밤새 비를 맞으며 본사까지 38km를 걸었다. 육원표 사장을 비롯해 임원진이 나와 이들을 맞았다.

신입사원들은 1층 로비에서 울동 등 준비한 장기자랑을 한 뒤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했다. 인근 식당에서 아침 식사도 함께했다. 이 행사의 이름은 '파란(破卵)캠프'(사진)다. '알을 깨고 나온다'는 뜻이다.



에스원은 매년 5~6차례 각 70여명의 현장출동 직원을 뽑는다. 대부분이 전문대졸로 정규직이다. 입사 뒤엔 12주간 연수를 시행한다. 무박2일 행군 등 체력 훈련을 비롯해 '유심(you·심·마음 훈련)', 봉사활동 등 다양하게 짠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보안업계에서 에스원이 유일하다.

이 회사가 행군으로 출동직원들의 '군기'를 잡는 것은 지난해부터다. 인재개발원 부원장인 박노현 상무는 "보안업 특성상 출동직원이 고객의 집 열쇠까지 맡게 되는데 간혹 '유혹'을 느끼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며 "사고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힘든 상황이 생겨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에스원은 1850여명인 출동직원 숫자를 연말까지 2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육 사장장은 "전국 각지의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인재를 받을 생각"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용인시청 3분 서래빌리지 전원 단독주택 분양!

배산임수 정남향의 대지 택지 7천 2백만원 + 복층주택 6천만원대 → 1억 5천만원이면 OK

(지목 : 대지 198㎡ 기준) (복층 49.5㎡ 기준 / 건축비 3.3㎡당 450만원) (인허가비 및 기반시설비용 포함)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전세값이면
우리가족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강남 출근 시간, 분당 30분 출퇴근 가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일대 / 자연녹지지역 / 대지+도로 2,980㎡ / 총 14세대

필지당 전용 198㎡
(도로 공유면적 : 33㎡)

▶ 인허가 및 기반시설비 별도
※ 복층도는 49.5㎡를 정기/부담 200㎡ 상용시 100㎡(20%) 환산

용인지역 타 분양지 보다 저렴한
대지 3.3㎡당 120만원

현재, 전기, 상수도 인입 / 진입로 도로포장

부담 배분(49.5㎡)

■ 신청금: 100만원 / 농협 231401-04-231962 (주)현대도시개발

법무법인 동고
분양문의 02)504-2019